



청년의 ‘내일’과 제주의 ‘내일’을 잇다

‘제주더큰내일센터’ 어떻게 진행되나

지난 10월부터 1기 100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제주더큰내일센터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제주더큰내일센터는 2년간 월 150만원 상당의 생활지원과 함께 취·창업에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先지원 後숙련’을 모델로 하고 있다. 이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시도되는 형태인데, 2년간 확보된 ‘기회’ 안에서 직업훈련·고용서비스·창업지원과 관련한 자원을 한데 묶은 ‘통합지원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2년 교육과정, 어떻게 이뤄지나= 지난 8월부터 모집을 시작, 2대 1 이상의 경쟁률을 통해 1기 참여자 100명이 선발됐다. 내년에도 4월 2기, 10월 3기 교육생이 추가로 선발된다. 인원의 25%는 도외에서 선발하는데, 다양한 인적 구성을 통한 자극

2단계(3개월)는 1단계 교육에 더해, 취창업 진로유형별로 심화교육이 진행된다.

우선 본인이 희망하는 산업, 직군과 관련된 프로젝트가 추가된다. 여기에 취업희망형 교육생의 경우 자기소개서 작성과 같은 기본적인 취업 준비뿐만 아니라 영어나 중국어 회화를 중심으로 하는 비즈니스 외국어, 비즈니스 매너 등 직무역량 향상에 방점을 두고 있다.

창업희망형은 사업 아이디어 발굴(구체화)부터 팀 빌딩, 사업계획서 작성, 시제품 개발 등 창업실무 돌입을 위한 준비 과정을 거친다.

3단계(6개월)와 4단계(12개월)는 경험과 실행을 통한 성장에 목표를 둔다.

취업희망형 교육생의 경우 향토기업, 강소기업 및 스타트업 등 도내 기업체에서의 프로젝트 기반 인턴십



지난 11월 25일 진행된 원희룡 지사와 내일센터 참여자와의 간담회 모습. 사진=더큰내일센터 제공

◆ 제주더큰내일센터 교육훈련 흐름도

기본공통교육 (1단계 3개월)	
인문학(고전) 독서토론, 각종 글쓰기, 비즈니스 외국어, 리더십 교육, 트리즈 및 디자인씽킹 등	
취창업 진로유형별 심화교육 (2단계 3개월)	
취업형	창업형
비즈니스 외국어, 조직생활을 위한 비즈니스 매너, 엑셀 및 PPT 실무 등 직무역량 향상	사업 아이디어 발굴(구체화)부터 팀 빌딩, 사업계획서 작성, 시제품 개발 등 창업실무 돌입을 위한 준비
<공통교육> 재무제표 분석, 마케팅 실무 등	
취창업 유형별 일 경험 확대 (3·4단계 / 18개월)	
취업형	창업형
프로젝트 기반 인턴십(일 경험 확대 중심) → 12개월 심화 인턴십 통한 정규직 채용 유도 ※ 경력개발 및 포트폴리오 구축	사업자등록 및 각종 공모전 지원, 실제적인 수익 창출 및 확대를 위한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IR 피칭 준비 등 창업실무 ※ 150만원 상당 생활지원 통한 창업실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제공

나, 또는 해당 기업체에 채용이 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험을 쌓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창업희망형의 경우 전문 창업교육 기관을 통해 2단계에서 진행한 창업교육의 심화과정을 밟는다. 실제 사업자등록 및 각종 공모전 지원, 실제적인 수익창출 및 확대를 위한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외부 투자유치를 위한 IR 피칭 준비 등 창업실무에 돌입한다.

기존에 선행된 대부분의 창업지원 사업은 대표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다. 홍보비 등 특정 용처로만 지원이 이뤄지다 보니,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느라 정작 창업에 집중할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하기 일췌였기 때문이다. 이에 150만원 상당의 생활지원을 기반으로 창업실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이 내일센터 사업의 핵심이다.

▶제주 미래 책임질 핵심 프로젝트=제주도정이 2년간 월 150만원의 파격적 지원과 함께 전폭적인 교육훈련 지원에 나선 이유는 기존의 일자리정책의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제주 일자리 문제해결의 핵심은 혁신적인 인재육성 및 인재 간 교류를 통한 강소기업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한 인재육성 및 공급을 위해 내일센터가 탄생한 것이다.

제주더큰내일센터 관계자는 “기업체에 돈을 풀어 인위적으로 채용규모를 늘리는 형태의 일자리정책은 일정 부분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며 “센터를 통해 육성된 혁신인재들이 도내 각 기업체로 흘러 들어가 기업을 성장시키거나 창업을 통해 도내 혁신역량의 총합을 늘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본령”이라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인터뷰 김종현 제주더큰내일센터장

“기존 평가 기준과 타협할 생각 없어”

“중도이탈자를 막으려면 교육 과정을 쉽게 해주면 되고, 취업률을 올리려면 기업의 지속·건전성과는 상관없이 아무 곳이나 연결해 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더큰내일센터의 목표는 제주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 기준과는 타협할 생각이 없습니다.”

김종현 제주더큰내일센터장의 운영 방침은 단호했다.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취업률과 중도이탈자의 수보다는 다소 더디더라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자립적 인재’를 양성해 제주사회의 한 축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것이다. 서울대학교 종교학과를 나온 김 센터장은 Daum 제주프로젝트 팀장, NXC(넥스지주회사) 대외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제주에서도 첨단 산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 인물이다.

“센터의 목표가 ‘청년의 가능성을 제주의 내일로 연결한다’입니다. 가능성을 끌어내려면 당연히 혹독한 훈련 과정이 필요하고, 취·창업 역시 인재로 거듭날 수 있는 곳으로 해주자는 거예요. 이러한 인재가 많아질수록 ‘제주 혁신역량의 총합’도 늘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센터장의 말대로 더큰내일센터의 교육은 강도 높게 운영되고 있다. 현재 1단계(9~12월) 훈련을 받는 교육생들은 하루하루 ‘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예를 들면 감귤 품종 2개에 대한 생산·유통·판매 등의 현황을 비교·분석한 뒤 이에 대한 브랜딩·유통·가공·6차 산업화 전략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교육생들은 지지만 따르는 단편적인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아닌 창의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인재가 되는 것이다.

“교육생의 훈련만큼 중요한 것이 기업이에요. 애써 훌륭한 인재



취업률·중도이탈자보다
‘자립적 인재’ 양성을
3년 내 400여명 배출
제주 곳곳서 역할하길

를 만들었는데, 기업에서 인턴이라고 방치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미스매칭’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큰내일센터는 기업 섭외를 전담하는 부서를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큰내일센터는 내년 4월과 10월, 각각 75명의 2·3기 교육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3년 내로 400~500명의 더큰내일센터 교육생이 제주사회 곳곳에서 제 역할을 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더큰내일센터 교육생들도 고등학교 동문처럼 서로 연결돼 개인을 넘어 제주사회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싶은 청년이 있다면 꼭 한 번 더큰내일센터 교육생에 도전해 2년간 자신의 역량을 맘껏 펼쳐보길 바랍니다.” 송은범기자

과 교류, 경험 확대를 위한 장치다.

2년의 교육기간은 크게 4단계로 구분된다. 초기 6개월(1·2단계)은 센터 내부교육 중심이다. 이후 18개월(3·4단계)은 취업 희망자를 위한 도내·외 기업체 연계 인턴십과 창업희망자 대상 전문교육 및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타 기관 연계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1단계(3개월)에서는 기본공통교육으로 취·창업 희망 여부에 상관없이 이뤄진다. 인문학(고전) 독서토론, 자기 에세이 글쓰기, 비즈니스 외국어, 리더십 교육, 트리즈 및 디자인씽킹 등 창의적 문제해결 관련 수업이 진행된다.

또 5~6명으로 구성된 팀 단위의 프로젝트도 매주 동시에 진행된다. 예를 들어 ‘감귤 품종 2개를 선택해 해당 품종의 생산·유통·판매 등 현황을 비교분석하고, 브랜딩·유통·가공 및 6차 산업화 전략을 수립하라’는 식의 과제가 주어진다.

에 투입된다. 각종 허드렛일에 동원되며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낮은 기존 인턴십과는 달리, 기업체의 인사업기화와 같은 프로젝트에 투입돼 일 경험을 쌓는다.

예를 들면 육지 진출을 준비 중인 도내 카페 프랜차이즈 사업체에서 시장조사부터 지점 개소준비, 마케팅 전략수립 등 미리 약속된 프로젝트에 투입된다. 이를 통해 일 경험을 쌓으며 경력개발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나가게 되는 것이다. 기업체는 인건비 부담 없이 가장 6개월까지 교육생들과 합을 맞춰볼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

4단계 심화 인턴십에서는 센터 교육생 신분이 아닌 기업체 소속 직원으로서 일 경험을 쌓는다. 이때는 센터 지원금 150만원 외에 기업체가 부담하는 약 30만~50만 이상의 인건비를 더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한다. 이 3~4단계를 거쳐 해당 기업체에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게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 제주은행 ● 한국병원
시외버스터미널 오라파출소 ● 국제보청기(국제기2층)
한라체육관 ● 실내수영장

대표 **임정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제주센터 와이드엑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소리와목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드엑스 제품

왜 와이드엑스 보청기 일까요?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심의번호 2018-GN1-11-0011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점: 와이드엑스 보청기 제주센터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청 ● 제주은행 ● CGV
와이드엑스 보청기 ● 광양사거리 ● 화북

제주시 동광로 4, 삼육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요목

유라실생 4년생

유라실생	3년생
감 평	3년생
천 해 향	4년생
성전온주	4년생
황 금 향	4년생
하래조생	3년생

뱅크 1년생, 수고 70전

한림종묘

010-3690-2453

감귤 신품종 분양

2020년 봄 출하 요목
분양 접수 중

만감류

레드행(무독) · 천해행(무독)
한라종 · 탐나는종 · 황금향
미니향 · 아파나스
제라몬(레몬)

조 생

유라실생 · 궁천(궁천번이지)
하례 조생
히로시마 7호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
010-3055-1885